

중국 운남농대 ‘보성 차 세계화’ 협력

차 재배·가공·유통 전문대학
차 산업 전문가 대표단 보성 방문
인재 양성·교류·수출 확대 맞손

중국 운남성의 농업 특성과 대학인 운남농업대학 대표단이 지난 8일 보성군을 방문해 차 산업 인재 양성

과 보성 차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운남농대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 체결된 ‘차 산업 교육협력 및 차 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교류로 추진됐으며, 주수생 부총장을 비롯한 차 산업 전문가 3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운남농대는 세계적인 보이차 산지로 알려진 운남성(雲南省)을 대표하는 농업대학으로, 차 재배, 가공, 유통 등 차 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이다.

이번 대표단은 지난해 5월 열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에도 참석해 보성 차의 중국 수출 가능성에 대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은 양 기관 간 실질적 협력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표단은 보성군청을 찾아 김철우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차 문화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보성 차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운남성의 농업 특성과 대학인 운남농대의 대표단이 보성군을 방문해 차 산업 인재 양성

과 보성 차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어 보성차밭과 차 재배 농가, 가공시설 등의 현장을 둘러보며 보성 차의 우수성과 유통 기반을 직접 확인하면서, 차 재배 및 가공과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과 중국 운남이 차 산업을 매개로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보성 차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성 차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서울시교육감 구례 서울유학생 생활상 둘러본다

42명 5개 먼단위 학교 유학 생활
18일 구례 찾아 환경 개선 등 논의

서울시교육감이 구례로 유학 온 서울초등학생들의 생활상을 둘러보기 위해 구례를 방문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18일 구례 산동 지역 중동초를 찾아 이들 농촌 유학생들의 생활상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학부모, 김순호구례군수와 신재성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더 나은 유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구례군 관내 서울서 온 유학생들은 초등학생 42명으로, 중동초를 비롯한 5개 먼단위 초등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일반 수업은 물론 도전 활동으로 지리산 둘레길 걷기, 섬진강 인라인과 래프팅, 지리산과 한라산 등산 활동 등을 체험하며 문화 예술 교육으로는 영화 제작과 연극·오페스트라·오르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5년째인 농촌 유학교육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전남에서 처음 시작 했으며 이어서 전북과 강원도가 참여 했다. 올해에는 제주도로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 376명의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하고 있다. 농촌 체류및 유학 비용은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함께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참여 학생 84.6%가 만족감을 나타 내고 있다고 한다. 농촌 유학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농촌 유학의 매력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깊은 우정과 협력,협동 생활을 제일 먼저 꼽았으며 학생수가 적어 교사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높이 평가했다. 또 자연 속의 인성 교육에 제일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한편 지난 4년동안 총2,227명의 학생들이 농촌 유학을 다녀 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시 쓰는 경제학자의 유쾌한 경제특강

이경재 전주대 교수

보성자치포럼 강연 큰 호응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경재 교수가 지난 10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73회 보성자치포럼에서 ‘시 쓰는 경제학자의 유쾌한 경제특강’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사진>

이날 강연에서 이 교수는 금융·보험·증권·경제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 세테크까지 아우르며,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시와 인문학적 감성을 곁들여 쉽게 풀어내 청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많은 강연을 해왔지만, 고향 보성군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연하게 되어 매우 설레고 감회가 새로웠다”며 “앞으로도 고향 주민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석한 보성군민 박정자 씨는 “처음엔

경제 강의라 어렵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사례를 들어가며 너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경재 교수는 지금까지 약 2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전공 분야인 금융·보험·경제는 물론 시와 인문학을 융합한 책들도 다수 출간해 학문과 감성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식 전달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집 『시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라는 시에세이집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한번 손에 쥐면 놓기 힘든 책’이라는 독자들의 평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다. 이 책은 ‘시 쓰는 경제학자의 유쾌하고 문물한 인문학 수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듯이, 그가 시인이자 아동문학가, 수필가로서 활동해온 경험이 녹아든 인문 에세이 시집으로, “시는 시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쓰고 즐길 수 있는 삶의 표현”임을 전하며 시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여수시, 고수온 피해 예방 총력...장비 지원·예찰 활동 강화

지난해보다 16일 앞서 주의보

민·관·경 합동 해상 모의훈련도

여수시가 지난 9일(오전 9시)을 기준으로 거문도를 제외한 여수 전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장마가 이례적으로 일찍 종료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해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해보다 16일 앞서 발령됐다.

시는 고수온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수 남면 해상에서 민·관·경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했다. 또 고수온 예비특보 발령과 동시에 분야별 대응체계를 가동해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고수온 대응을 위해 총 33억 원을 투입해 액화 산소 공급기, 그늘막, 압축기(컴프레서) 등 장비를 보급해왔다.

올해는 면역중강제 58톤을 보급 완료했고 액화 산소 880통도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다. 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가입비 9억원, 어류 폐사체 처리비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수온이 장기화될 경우 예비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고수온 예찰 상황과 양식장 관리요령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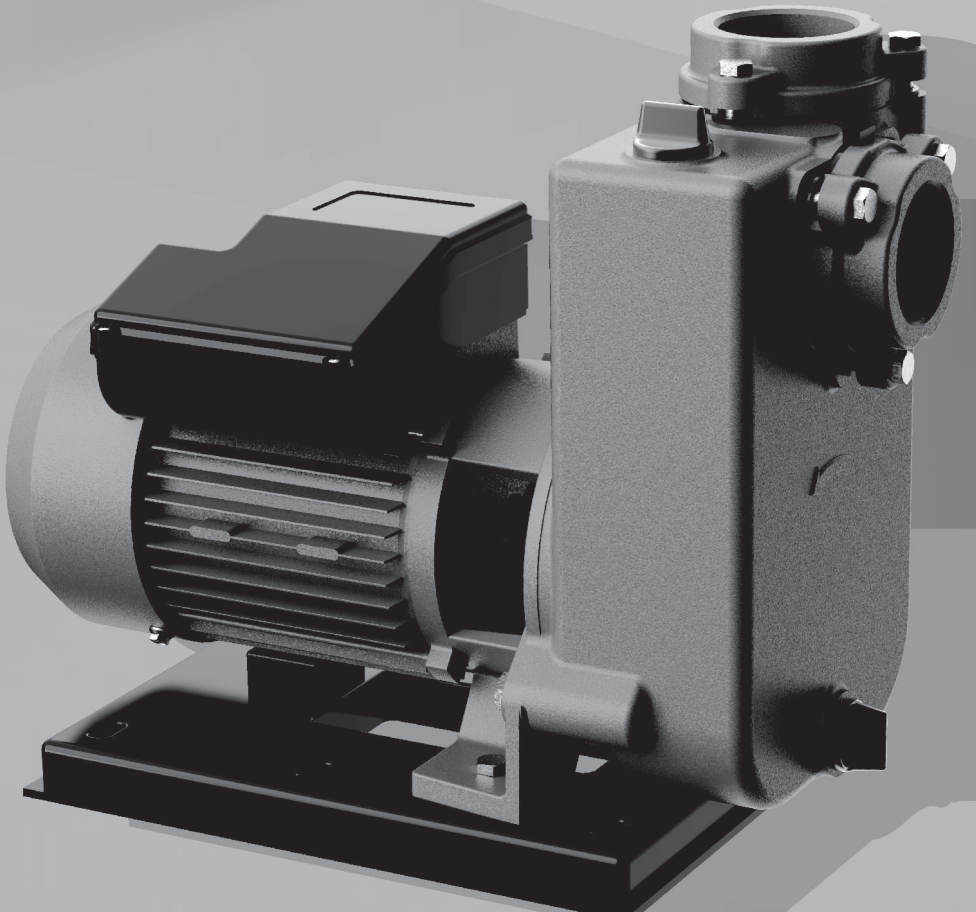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여수시가 지난 9일 여수 전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들이 현장점검에 나선 모습.

서면 및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으며 부서장과 관련 부서 직원들이 양식 어장을 순회하며 피해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수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

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어업인분들께서도 조기출하, 사료 공급 중단 등 양식장 관리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피해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